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3. 7. 13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기획정책과
담당	과장 이화영, 기획팀장 전지숙, 담당 손솔이(032-453-7115)

K-콘텐츠 도시 등 미래비전 제시…IFEZ, 초일류도시 도약 준비한다

인천경제청, IFEZ 발전자문위 전체회의 개최…20년 성과 공유·미래 비전 등 논의
제4차 산업혁명 기업 도시·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 등 7대 미래 비전 통해 인천 도약 견인차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10월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‘K-콘텐츠 도시’ 등 7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초일류 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.
- 인천경제청은 13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발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날 회의에서 김청장은 △뉴홍콩시티 프로젝트 △국제금융도시 △제4차 산업혁명 기업 도시 △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 △미래 스마트시티 △K-콘텐츠 도시 △관광·레저 허브도시 등 IFEZ 도약을 위한 7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.
- 이는 ‘글로벌미래자유도시특별법’ 제정을 통해 세계인이 자유로이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 자유도시를 건설하고, 제2스타트업파크 조성을 바탕으로 IT(정보기술), BT(바이오 기술), ST(항공기술), CT(문화기술) 등 이른바 ‘6T’가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.

- 특히, ST(항공기술)는 인천이 최초의 로켓 발사 지역이라는 역사와 함께 항공 관련기술발전의 잠재력을 강조하였다.
- 아울러 K-바이오 육성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시 조성 및 ‘K-콘텐츠의 생산기지’로의 도약도 포함되었다.
- 이밖에 관광, 레저 허브 도시 조성 및 관련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과 168개의 섬이 있는 인천의 특성 및 현재 추진 중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,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.
- 유정복 시장은 “IFEZ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”이라며 “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IFEZ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밝혔다. 그는 이어 “IFEZ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자문위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- 한편, 이날 이경태 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한 IFEZ 발전자문위원회는 총 4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, 기획정책, 투자유치, 도시개발, 문화관광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IFEZ 비전과 전략, 개발, 투자유치, 경영·정주 환경 조성 등 관련 사업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IFEZ의 경쟁력 제고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1:00)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